

특별기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키워가는 도시농업의 매력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최 모씨는 최근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삶의 새로운 재미에 눈뜨게 되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 농업은 농촌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벗기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심 한 가운데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여가와 여유 공간을 활용해 도시농업을 체험하려는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식물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시농부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작은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기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돌봄과 정성에 반응해 성장해가는 농작물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뿌듯함과 더

불어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충만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의 사무실, 옥상, 아파트 베란다, 공터를 이용하여 여가를 활용하여 신선 채소를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과는 달리 도시지역에서 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도시농업이라고 한다. 요즘은 도시 안에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수목, 화초, 양봉을 키우는 것까지도 도시농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 기르면 '행복 호르몬' 촉진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운동으로 시작된 이래 도시농업 육성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확산하면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2010년 15만명 104ha에서 2018년에는 약 200만명 1,300ha로 참여자와 경작면적에서 8년 사이에 약 13배나 증가했다. 우리 시에서도 약 6만명의 시민들이 13ha의 도시 텃밭 등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주택의 옥상을 활용한 주택 활용형, 근린생활권에 있는 토지를 활용한 근린생활원형, 고층건물의 내·외부를 활용한 도심형, 농장이나 도시공원을 활용한 농장형,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한 학교 교육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주로 학교, 근교, 주택의 공간을 활용하여 이뤄지고 있다. 최근 도시농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며, 여가활동을 즐기게 해주고, 안전한 먹거리를 재배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며, 공동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등 도시농업은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정신적 치유의 효과도 크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주간 텃밭 가꾸기를 했더니 종전보다 육식, 조식이 감소하고, 인성, 사회성, 공감 능력이 높아져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전문 작가들이 식물 기르기 활동을 한 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농작물을 기르게 했더니 불안감, 우울증이 감소하고, 치매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우리 시에서도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시농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인의 삶을 꾸꾸는 시민들을 위해, 친환경 도시 텃밭 조성, 친환경 상자 텃밭 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5개 구청에 약 100개소 12ha의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했고 앞으로 텃밭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소중함을 이해시키기 위한 학교 텃밭 지원사업도 115개교에서 추진 중이다.

도시민 텃밭 지원사업 등 추진

도시농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및 기술보급을 하도록 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온 가족 힐링원에 체험교실, 오감 만족 농부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하고 식물의 푸르름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현대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삶의 만족감도 떨어지고 있다. 현대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시대라고 한다. 도시농업이 소확행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가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 경작하고 수확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광주·전남 일자리평가 수상 환영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광주시는 전국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상'을, 전남도는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문제가 나라의 최우선 화두임을 감안할 때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 일자리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용률·취업자 등 정량지표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적합성·효과성 등 정성 지표를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평가에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가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한 전남도는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줄어, '정량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일자리 적합성을 따지는 '정성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김영록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스템 구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사가 취임 후 일자리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일자리 민원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자리 업무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챙겨 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용률·취업자 등 정량지표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적합성·효과성 등 정성 지표를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평가에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가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한 전남도는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줄어, '정량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일자리 적합성을 따지는

군 공항이전 통합 협력체계 구축해야

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등 이전 대상 자치단체 간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후보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각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보길 바란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송갑석·천정배·김동철·권은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연구위원과 류일영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허익배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이 참여했다. 사실 그동안 광주 군공항문제는 국방부가 무안·영암·해남·신안 등 4곳을 대상으로 설명회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 실무 책임자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서 이목을 끈 것은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 전남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사실 군공항 이전을 반길 주민은 없다. 이 때문에 후보지를 확정해 가는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군공항이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때 군공항 이전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소중한 가족보호는 '사전지문 등록 제도'로



오국범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전국에서 꽃놀이와 지역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나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 가족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 내 부모가 사라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내 가족을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치매 환자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더 그

러하다. 이렇게 나의 가족이 실종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에서는 사전지문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이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청에서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로, 아동의 경우 지문이 형성되면 언제나 가능하다. 보통은 36개월 이후 지문이 잘 나타난다. 한번 등록했다고 되지는 않는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진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한데, 지문등록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모바일 앱,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가족 중에서는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려 해 지문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과 그리고 해당자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핸드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어 가정에서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입력할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한 경우에는 평균 46분 이내에 발견할 수 있지만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94시간이 소요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이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지문등록제도다. 최근 미아, 가출인, 치매, 정신질환으로 집을 나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찾겠다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종 아동 사건에 있어서는 골든타임

(golden time)이 존재한다. 아이가 실종된 지 12시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종사건 발생 시 1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경찰은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3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등록을 하고 있지만,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는 등록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지난주부터 관내 아동 병원 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에 진출 등록을 하고 있어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병원 내원 시 이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설마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소중한 자녀를 위해 미리미리 아이의 지문을 사전 등록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특지광장

청렴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청렴이 뭐지?", "음... 사적인 감정 없이 일하는 거? 흠... 나도 잘 모르겠다." 발령받은 지 1년도 안된 공무원 초년생인 내가 임용 동기와 나눴던 대화다. 공직의 길에 들어선 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청렴인 듯하다. 공무원 현장에도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청렴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아직도 손에 확 잡히지 않는 게 사실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대표 저서 목민심서에는

목민관, 즉 지금의 공직자 도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청심편'을 보면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마을을 지날 때 추하다고 욕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이미 사사로움이 행해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행동 지침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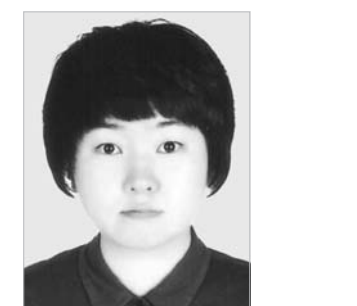
생각해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각종 부패와 비리로 인한 뉴스를 접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 뉴스 또한 적지 않다. 그 어떤 업무를 맡아 추진하던 공무원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부패, 비리와 연결된 업무처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직 전체를 옥보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부패와 무사안일을 작정하고 공직에 들어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처음 공직에 발

을 들었을 때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세월이 나태해지고, 자의반 타의 반 초심을 잃게 되면 청렴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다반사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가 유독 눈에 띄지 않는가. 빗발의 부패로 인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신뢰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막 청렴의 대열에 선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나의 작은 언행이 모든 공직자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됨을 다시금 되뇌어 본다. 청렴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며 나로부터 시작된다. 것도 함께 말이다. /광주시 서구 농성2동 주무관 차성훈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광주 포함시켜야

기지사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열출력 사고는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운전하고, 근무자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에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한빛원전 운영 중에는 처음이고 2012년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업체 사고, 2013년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 역사상 세 번째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한빛원전 간에 설치 운영 중인 핫라인은 가동되지 않았다. 시는 사고 발생 당일 밤 10시 24분께 한빛원전 1호기 운영기술지원서 적용에 따라 수동 정지 했다'는 문자만 통보받았다. 원전사고 발생 시 한빛원전에서 35km거리인 광주에 15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사고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등급상 청색비상 상황이 아니고 광주가 방사능방재계획상 원전 반경 30km로 규정된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어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황애란
정지구 차장

광주시도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2014년도에 전국 최초로 핵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 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7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사고 대책 마련과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위해 시와 시민회,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광주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대책 수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빛 원전과 광주시의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과 전문인력 확보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생생하게 실감했다.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는 원전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광안)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 **金善勇**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경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경제부 (062) 720-1066-67	기획실 (062) 720-1005
사회부 (062) 720-1050-54	논설실 (062) 720-1032
사회2부 (062) 720-1043-45	월간국 (062) 720-1006-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리국 (062) 720-1012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판매국 (062) 720-1098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업국 (062) 720-1011
사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기지사침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주: 원화사광주인쇄사